

‘좀비·저승·초능력’...韓영화, 더 이상 한계는 없다



한국영화에 더 이상 한계는 없다. 2018년 첫 100만 관객을 동원.

신과함께, 한국형 판타지 블록버스터 가능성 보여 부산행, 해외서 작품성 인정·염력, 새로운 시도

12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 총 120만18684명을 기록하고 있는 영화 '신과함께'(김용화 감독)는 단순한 흥행 수치 뿐 아니라 한국형 판타지 블록버스터 영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신과함께'는 탄탄한 원작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지만 인간의 죽음 후 저승에서 각기 다른 지옥을 경험한다는 한국적 사후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영화화 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낳은 바 있다.

하지만 100% 한국의 CG(컴퓨터 그래픽)과 VFX(Visual FX, 시각적 특수효과)로 새로운 차원의 비주얼을 완성했으며 영화 개봉 이후 관객으로부터 한국 영화의 장르적 한계를 깨부셨다는 호평을 이끌었다.

뿐만 아니라 '신과함께'는 3월 홍콩에서 열리는 제12회 아시아 필름 어워즈 시각효과상에 노미네이트되며 국제적인 관심까지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016년에는 '부산행'(연상호 감독)이 한국 영화의 장르적 가능성을 더욱 넓혀줬다.

할리우드 영화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좀비라는 소재를 한국 영화로 가지고와 특수효과와 눈부신 성

장을 보여줬다.

뿐만 아니라 평단과 관객들에게 아빠와 딸, 신혼 부부, 고교 야구팀 학생들 등 다양한 캐릭터를 생생하게 그려냈을 뿐 아니라 부산행 KTX 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좀비와의 사투를 리얼하게 담아내며 '새로운 한국형 좀비 스릴러'를 탄생시켰다는 찬사를 받았다.

장은 보여줬다.

뿐만 아니라 평단과 관객들에게 아빠와 딸, 신혼 부부, 고교 야구팀 학생들 등 다양한 캐릭터를 생생하게 그려냈을 뿐 아니라 부산행 KTX 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좀비와의 사투를 리얼하게 담아내며 '새로운 한국형 좀비 스릴러'를 탄생시켰다는 찬사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평단과 관객들에게 아빠와 딸, 신혼 부부, 고교 야구팀 학생들 등 다양한 캐릭터를 생생하게 그려냈을 뿐 아니라 부산행 KTX 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좀비와의 사투를 리얼하게 담아내며 '새로운 한국형 좀비 스릴러'를 탄생시켰다는 찬사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평단과 관객들에게 아빠와 딸, 신혼 부부, 고교 야구팀 학생들 등 다양한 캐릭터를 생생하게 그려냈을 뿐 아니라 부산행 KTX 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좀비와의 사투를 리얼하게 담아내며 '새로운 한국형 좀비 스릴러'를 탄생시켰다는 찬사를 받았다.

린다. '부산행'으로 한국형 좀비 스릴러를 탄생시킨 연상호 감독이 이번에는 한국형 웰메이드 초능력 히어로 영화를 탄생시킬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아진다.

또한 올해는 '부산행'을 이을 새로운 한국 좀비 영화도 개봉한다. '공조'를 통해 흥행력을 인정받은 김성훈 감독이 다시 한 번 험빈과 호흡을 맞추는 '창끝'이다. '창끝'은 조선시대로 배경을 옮긴 새로운 사극형 좀비 영화다.

영화 관계자들은 "한국 영화의 수준과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부산행' '신과함께'의 성공으로 SF, 판타지 장르의 시나리오도 많이 개발되고 있다"며 "장르적 한계가 더 이상 한국 영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시대가 왔다"고 전했다.

‘골목식당’도 순항...진정성 돋보여

백종원의 3대천왕·푸드트럭 이어 성공 예감



종원 사단의 고군분투 이야기가 공개됐다. 먼저 백종원은 이번 프로젝트에 합류에 망설였던 버거집 사장을 만나 진심 어린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합류할 것을 제안했다. 버거집 사장은 "나도 망해봐서 안다. 사람을 창피해서 못 만나게 되더라"며 백종원의 솔직한 이야기에 마음을 열었다.

이밖에도 백종원은 소비자를 찾아 맛 점검을 시도했다. 손님 보기를 돌같이 했던 소비집 사장은 백종원의 등장에 반색했지만 "맛 평가를 위해 나가 달라"는 말에 긴장했다. 백종원은 호기롭게 시식에 나섰다. 완벽한 맛에 만족스러워하며 호평을 했다.

이날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백반집 사장과의 제육볶음 대결. 백종원은 "내가 이기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된다"며 블라인드 테스트를 제안했고 백반집 사장 역시 수락했다. 백종원마저 놀랐던 긴장감을 느끼는 가운데, 결과는 백종원의 승이었다.

Y2K 고재근과 개그맨 남창희의 '남고식당'은 가오른 시사회를 열었다. 백종원에게 직접 솔루션을 받은 두 사람은 연어마요포케와 참치포케 등으로 메뉴를 준비했고 가게를 방문한 손님들은 "맛있다"고 호평했다.

'골목식당'은 골목 상권을 살리고자 하는 백종원의 진정성이 돋보였다. 또 각 음식점 사장들의 캐릭터가 분명해 백종원과 만들어내는 케미가 다양했다. 특히 백반집 사장의 독특한 캐릭터와 백종원과의 케미는 '푸드트럭'에선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이었다.

백종원이 '3대천왕', '푸드트럭'에 이어 '골목식당'도 성공으로 이끌고 있다.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2주 연속 시청률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12일 방송된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1부 시청률 4.3%, 2부 시청률 5.7%(닐슨코리아 전국기준)을 기록해 지난주 방송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앞서 백종원이 이끌었던 '3대천왕', '푸드트럭'이 9% 정도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것보다는 낮은 수치다.

하지만 첫 방송 이후 상승세를 탔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청자들의 반응도 호평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날 방송은 제작진과 백종원이 첫 심폐소생 골목으로 선정된 '이대 삼거리 꽃길'을 살리기 위한 백

“반전 무대 기대” ‘너목보5’, 포스터 공개

‘너목보’ 메인 포스터가 공개됐다.

17일 Mnet 너의 목소리 가 보여 시즌5(이하 너목보5) 측은 푹푹 튀는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공개된 포스터에는 '너목보5' MC 김종국, 유세윤, 이복의 재기발랄한 모습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세 사람은 하나같이 입으로 '5'를 외치며 깜짝 놀란 표정을 짓고 있어 이번 시즌5에서도 세상을 놀라게 할 만큼의 반전 무대들이 속출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세 사람이 힘차게 점프하는 모습 위로는 다양한 손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시청자들을 일탈당송하게 만드는 미스터리 신어들을 연상시켜 흥미를 자극한다.

메인 포스터 가장 아래쪽에는 '오타 아님! 완전 중요! 시간 바꿨오!'라는 글씨로 시즌5의 방송시간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로 변경된

것을 재치 있게 강조하고 있다.

한편 '너목보'는 직업과 나이, 노래 실력을 숨긴 '미스터 리 싱어' 그룹에서 얼굴만 보이고 실력자인지 음지인지를 가리는 대반전 음악 추리쇼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신선한 콘텐츠, 숨은 실력자들의 놀라운 무대를 선보이며 2015년 첫 방송 이래 평균 3%를 넘나드는 시청률을 꾸준히 기록,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Mnet, tvN 공동 방송.



2018년 최고의 기대작 '블랙팬서'가 마블 영화 사상 가장 높은 사전 예매량을 기록했다.

영화 '블랙팬서'는 와칸다의 국왕이자 어벤져스 멤버로 합류한

‘블랙팬서’, 마블 영화사상 최고 사전 예매량 경신

'블랙팬서' 티차라(체드윅 보스만)가 화귀 금속 비브라늄을 둘러싼 전세계적인 위협에 맞서 와칸다의 운명을 걸고 전쟁에 나서는 2018년 마블의 첫 액션 블록버스터.

2018년 마블 10주년의 포문을 열 '블랙팬서'가 역대급 오프닝 수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미 유료 매체 스크린린트에 따르면 영화 '블랙팬서'가 예매 오픈 24시간 기준 마블 영화 사상 최고 사전 예매량 기록을 경신, 종전 마블 영화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던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의 사전 예매량을 뛰어 넘으며 영화를 향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이와 같은 폭발적 사전 반응에 힘입어 미국 영화 전문 사이트 박스오피스 프로(Boxoffice Pro)는 '블랙팬서'의 북미 개봉 첫 주 오프닝 수익을 당초 예측했던 1억 불에서 1억 2,000만 불로 상당 조정했다.

이는 '스파이더맨: 홈커밍'(약 1억 1,700만 불), '닥터 스트레인지'(약 8,500만 불)의 오프닝 기록을 뛰어 넘는 수치일 뿐만 아니라 '토르: 라그나로크'(약 1억 2,270만

불)의 기록과 비견 되는 수치다.

이에 '블랙팬서'가 전세계 극장가를 장악한 마블 솔로 무비들의 기록들을 가볍히 제치고 새로운 마블 흥행 신화를 써내려 갈 작풍이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블랙팬서'는 2월 대한민국의 아시아 프리미어 개최를 전격 확정 짓고 체드윅 보스만, 마이클 B. 조던, 루피타 뇽, 라이언 쿨러 감독이 한국 방문할 것을 예고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오는 2월 14일 국내 개봉 예정이다.

대세와 최고의 만남...멜로망스, 다비치 앨범 참여

다비치, 25일 정규앨범 발표...기대감 높아져

남성 듀오 멜로망스 정동환이 여성 듀오 다비치의 새 앨범에 참여했다.

가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동환은 다비치가 오는 25일 발표할 예정인 정규앨범 수록곡에 참여했다. 지난해 대세 남성 듀오로 떠오른 멜로망스와 국내 최고의 여성 듀오 다비

치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을지 기대를 모은다.

다비치는 오는 25일 세 번째 정규앨범을 발표한다. 다비치의 신보인 2013년 3월 18일 발표된 정규 2집 '미스틱 발라드 파트2(MYSTIC BALLAD Part 2)' 이후 5년여 만이다. 이번 정규은 다비치 특유의 발

라드 감성이 가득 담겼다.

다비치는 이적이 선불한 신곡을 연말 콘서트에서 공개해 정규 앨범에 대한 관심을 한층 더 끌어올린 바 있다. 또 워너원 강다니엘이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출연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여기에 멜로망스까지 힘을 보태며 다비치의 새 앨범에 대한 기대감



오늘의 순세 2018년 1월 18일 목요일 (음력 12월 2일)

▶**쥐** 큰 것만 찾지 말고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가지라. 봉사도 하고, 베풀기도 하라. 정상에 오를 때가 곧 온다. 푸른색 옷을 입었으면 이달에 행운을 잡는 계기가 된다. 3, 7, 11월생은 조심할 것.

▶**사슴** 출근분에 수자가 찍히는 보람처럼 오늘의 수입은 괜찮을 듯. 연인과 약속한 것 실행에 옮기지 말라. 구설과 책임질 일이 생긴다. 취업을 원하면 서, 남쪽에 있다. 외안색으로 단장.

▶**황새** 물질이 풍족하다고 마구 낭비하지 말라. 자기 자신만 믿고 경솔한 행동을 하다 큰코다칠까 염려된다. 가능한 북쪽 사람과는 약속하지 말라. 가벼린 자 찾지 말라. 또 간다. 4, 5, 6월생 노란색 길.

▶**개** 상상의 총애로 희망이 부풀어 있으나 입조심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 자기 수양에 필요할 때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을 듯. 손재수 조심. 2, 8, 12월생은 음식 조심하고, 외출을 삼가라.

▶**용** 자신을 너무나 낮추지 말라. 지나친 겸손은 해가 된다. 자신 있게 출발하라. 뜻한 바가 이뤄질 것이다. 용기가 필요할 때, 동쪽, 북쪽에 행운이 있다. 1, 2, 7월생 욕심을 버리고 투자를 삼가라.

▶**뱀** 아랫사람의 말도 소홀히 흘리지 말고 귀담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오늘 하루가 즐겁다. 손아랫사람들에게서 행운이 오는 날이다. 3, 5, 7월생 가족과 협력하면 투기에 길하다.

▶**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했다. 겸손한 자세로 사물을 보라. 인내가 필요할 때 구름은 걷히고 태양이 빛난다. 기, 비, 오 성씨는 공짜 술이 생기는 날. 급한 것은 금물 입을 알아야 후회할 일 없을 듯.

▶**황새** 기다리고 기다리던 매대 건에서 소식이 올 듯. 기본도 좋고, 일도 손조롭게 풀린다. 상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칭찬도 받을 수다. 잡념을 버리고, 하는 일손을 중단하지 말 것. 3, 8, 11월생 이제 빛이 보인다.

▶**황새** 주변 사람 말을 귀담아들으라. 하려는 일에 도움이 될 듯. 그리하면 가뭄에 단비가 오듯 일이 풀린다. 다만 물건이 나가는 것은 많으나 들어오는 것은 없다. 4, 8, 10월생 자식 걱정.

▶**개** 오늘은 남에게 도움만 주지 내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 그러나 봉사하는 즐거움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함께 사는 사람이 4, 6, 12월생이면 주의 깊게 관찰해 보라. 늦은 귀가는 삼가.

▶**개** 정상이 보이듯 아침에 까치가 울더니 뒷사람의 조언에 용기백배로 행운이 있구나. 지나친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기본 좋은 날. 소망은 이뤄질 듯. 단, 2, 9, 11월생은 조심해야 한다.

▶**황새** 벌여놓은 일은 오늘로 끝내라. 결실을 내일로 미루면 손해가 크다. 투기는 처음은 기본 좋겠으나 중반부터는 하락의 일로를 걷는다. 길조심도 잠시 해야 할 하루다. 사람 속을 알아보는 독심술이 필요한 때다.